

그는 “국가가 나를 베풀 끝으로 미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주는 느낌을 받았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후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분할 납부금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트럭이 멈추지 않았기에 소득이 발생했고, 그 소득으로 세금을 갚아나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에필로그: 공감과 원칙이 공존하는 스마트 세정

2025년 강남구 세무관리과의 징수 활동은 단순히 체납액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과세의 공백을 메웠고, 친절한 소통으로 외국인 납세자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기계적인 징수 대신 납세자의 형편을 살피는 유연함으로 상생의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세금 징수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납세자를 잠재적 범법자가 아닌 ‘우리 사회의 동반자’로 바라볼 것입니다. 공정한 원칙을 지키되, 그 적용 과정에서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 그것이 강남구가 지향하는 스마트 세정의 미래입니다.